

대학생 절주사업의 실제

윤 혜 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있어 음주는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로 음주로 인한 대학생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인데도 대학생 음주에 관해 학교나 정부당국에서 적극적 개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대학생의 음주라는 현상의 역학이 매우 다면적이고 복잡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은 시간제한적인 “한 때”의 행동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보다 심각한 음주 이유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많은 대학생들이 사춘기 청소년으로부터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 시기의 변환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 자아정체성 혼란, 정서적 스트레스, 낮은 자긍심, 알코올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지식,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알코올 남용 역사와 같은 모든 요인들이 이들의 알코올 남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경적·정서적 스트레스는 모든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서적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 이런 스트레스의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Chickering, 1990). 따라서 이들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일차적인 대처 전략으로 삼게 된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향상으로부터 차단되고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의 실현에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즉 대학생 음주자 비율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코올의 상반된 이중적인 속성(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과 청소년과 성인기 사이의 변환기에 위치한 연령적 특성 때문에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일 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 남용에 대한 연구조사는 주로 청소년이나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연구조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생들의 알코올 남용은 임상가, 상담가, 학교행정가, 교육자, 학자, 정부관리, 행정기관 종사자, 학생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심영역으로 꾸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 왔다.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 약물남용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생들의 음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실 음주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그간 극적인 변화를 보여, 학교 행정가들로 하여금 캠퍼스에서의

음주를 새로운 급박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주류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판결들은 학교의 학생음주에 대한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 것이다. 이 글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짚어보고 절주를 통해 음주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향과 그 실천 전략에 주목한다.

1. 대학생 음주의 현실과 문제

1) 대학생 음주행동의 특성

대학생 음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문제도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여러 증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음주와 음주문제에 대한 현재니 대처는 극히 안이하다. 대학생 자신들은 대학생활과 음주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학교당국도 대학생 음주의 심각성을 애써 폄하하고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주로 청소년이나 일부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뿐 대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수준에서건 대학생 음주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 음주행동의 특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높은 음주자 비율과 폭음, 그리고 잦은 음주빈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국 14개 대학의 남녀대학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한 조사(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에 따르면 대학생 음주자의 비율은 93%(남학생 94.3%, 여학생 91.4%)로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성인 음주자 비율을 웃돈다. 이는 미국 대학생 음주자 비율인 86%(US DHHS, 1996)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대학생들은 음주빈도도 높아서 조사 대상자의 27.7%가 일주일에 2~3회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4회를 마시는 학생도 10.9%나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학생 2명중 1명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술을 마실 때 2차 이상 가는 비율이 65.2%로 성인의 41.6%보다 월등히 높았고 남학생의 24.8%, 여학생의 8%가 폭음하는 것(1회 음주시 5잔 이상 섭취)으로 나타났다.

최초 음주시기는 고교재학시가 39.7%로 가장 많았으나 30.7%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시작시기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여준다. 응답자중 79.9%가 대학교에 들어온 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것과 술을 많이 마시는 시기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1위로 꼽은 것은 대학이 음주의 중요한 장이 되고 있음과 대학에서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른 특징으로는 여학생 음주자의 증가와 생활관 거주학생들의 폭음 현상이다. 전체 여학생의 91.4%가 음주자이며 음주량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모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여학생 음주자의 증가는 대학 알코올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생활관(기숙사) 거주자의 높은 음주율과 폭음 경향

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일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Greek House(Sorority, Fraternity)의 음주문제가 유명한데 이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해방감, 집단생활을 하는데서 오는 또래 집단의 압력, 모험심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시 대학의 알코올 정책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2)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기질적 요인을 중시하는 유전적 측면,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설명들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왜 술을 마시는가? 대학생들의 음주는 통과의례로, 기성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그리고 동료집단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인식되어 왔다(Engs, 1990). 여기에 심리적, 인구학적 특성들이 영향을 미친다. Pullen(1997)은 성별, 자기주장, 자긍심, 연령, 불안, 성적, 우울, 그리고 알코올 남용의 가족력등이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알코올 남용의 경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자긍심이 낮고 심리적 혼란상태에 있어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며 개인적으로는 무력감에 빠져 있고 불안이나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경우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Huber, 1985; Kaplan, 1979)하는 것이다.

긴장감소이론(Tension Reduction Theory)도 알코올 사용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 불안을 경감시켜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Brooks, 1981; Kalodner et al., 1989). 이는 알코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에서 술을 마신다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도 연관시켜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uitsman과 Colbry(1995)도 음주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알코올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라고 밝히고 있다. 알코올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약물로 보는 일반적 시각이 대학생으로 하여금 알코올이 무해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예측 변인은 동료집단의 알코올 사용유형에 대한 인식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들은 폭음가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Burrell, 1992). 동료집단은 대학생들의 음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Tryon, 1992).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심리적, 인구학적 원인은 조사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98년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음주이유(복수응답 가능)는 사교상, 또는 인간관계 때문(90%)이 가장 많았고, 2위는 친구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67%)이었고 친구의 강요라는 대답도 29%나 되어 동료집단의 압력이 대학생음주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음주 파트너는 친

구나 선후배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지지해준다. 이외에 화풀기(65%), 근심을 잊으려고(40%), 긴장과 불안의 해소(30%) 등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계획시 기반을 두어야 할 이론적 검토를 시사해 준다.

3)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에 따른 문제

대학생들은 문제음주를 음주의 양이나 빈도보다 음주후 개인의 사회생활이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는 대개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음주로 인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기회비용의 상실, 사고와 폭력, 원치않는 성관계, 인간관계문제와 음주자의 건강문제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52%, 술값 때문에 걱정된 경우가 47%, 사고나 폭력을 유발한 경험은 32%, 피해를 당한 경험은 23%,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6%,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11%,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문제의 수준이 방치해 둘 수 있는 지점을 훨씬 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술을 마시고 blackout 현상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46%에 달했으며 blackout 현상을 한 학기동안 두 번 이상 경험한 학생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NAST(I)을 적용했을 때, 4개 이상의 문항에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4%정도로 나타났으나 음주문제로 인해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학생은 9%에 지나지 않아 대학생들의 알코올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는 비율도 52%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Kinney, 1992) 일반 사회인의 음주자 비율이 조금씩 경감하는 것과 반대로 대학의 알코올 남용이 악화일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는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없이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마시는 사람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알코올 남용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 예방

1) 알코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책

북미와 유럽지역의 알코올 소비 경향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다가 1980년대부터는 정체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90년대 초까지 증가추세였고 일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조성기, 1997). 전반적인 경향은 남자 성인의 경우 감소 정체되는 유형이지만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급전적으로 환산할 때 GNP의 약 2~3% 수준인데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별로 알코올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다. 알코올 문제 대응방법은 알코올에 대한 시각과 관계가 있다. 세계 각국의 알코올 정책을 보면 알코올 소비를 통제하려는 접근책과 알코올 소비에 있어서 자율성을 중시하는 접근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제적 접근은 알코올의 생산, 판매, 가격, 광고등의 규제로 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접근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주자나 사회의 알코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려 하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알코올 정책의 다양한 접근책

관련 환경규제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허용연령제한 · 주류 판매 장소 제한 · 주류판매점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 대한 홍보 · 음주운전 방지 홍보 · 여성/청소년 음주폐해 홍보
주류 산업규제	활동자원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가격/조세 규제 · 생산량 통제 · 판매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기관의 육성 · 정책/연구조사의 확충 · 지역사회 및 단체의 활동 강화

선진국의 알코올 문제 예방 사업의 핵심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음주운전 방지교육, 미성년자 음주예방 및 임신 여성 음주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관, 단체 및 개인과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각자의 역할을 구분 활동하면서도 상호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민간은 직접적인 치료활동에 주력하는 것이다.

2)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의 원칙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대처는 예방노력과 치료 서비스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알코올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에 치중해 있어, 예방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다. 그중에서도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남용 예방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의 음주유형이나 알코올 남용 실태는 대학생의 음주가 일부 학생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알코올 남용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의 알코올 문제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보다는 예방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은 치료와 달리 개인보다는 집단과 지역사회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아직 문제는 없으나 문제를 가질 위험이 높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Cowen, 1981). 세계보건기구는 예방을 표적 집단에 따라 1차예방, 2차예방과 3차예방의 세가지 모델로 분류하고 있으며 IOM(Institute of Medicine)은 이를 보편적·선별적·지시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삼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표 2>는 대학생 음주를 주제로 예방의 세가지 분류와 그 대상 및 중심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예방의 종류

예방의 종류	예방노력의 대상	예방노력의 내용
1차예방 (보편적 예방)	음주경험이 없거나 적은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변화 중심의 접근법: 인식증대, 정보제공, 사회기술훈련, 자기관리등 • 환경변화 중심의 접근법: 또래 집단 문화접근,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정부알코올 정책의 정교화
2차예방 (선별적 예방)	음주경험이 있고 음주를 하고 있으나 치료가 필요치 않은 대학생 (음주문제를 가질 위험이 평균 이상인 대학생)	
3차예방 (지시적 예방)	심한 음주문제가 있거나 치료를 경험한 대학생	치료 및 재활 센터 등

대학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1차 및 2차 예방활동이 될 것이며 3차 예방의 경우에는 전문적 치료기관으로의 의뢰가 훨씬 비용효과적일 것이다.

예방의 두 번째 특징은 위험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와 보호요인의 증진이다. 위험요인(risk factors)이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험요인을 밝혀내어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위험요인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즉 위험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개인의 기술이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기능을 촉진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요인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고 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면 문제를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표 3>은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대학생 음주문제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표 3〉 알코올 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구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 우울, 충동성 및 공격성 · 학교생활의 문제, 학습부진 · 범죄, 비행등 문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학업성취도 · 효율적 자기관리와 개인적 책임성 · 적절한 의사결정능력과 지적 능력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원하거나 문제있는 가족관계 · 가족의 알코올 관련 문제 · 동료집단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타자와의 긍정적 관계 · 긍정적인 동료집단
제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가격 · 주류 구입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기타 사회기관에의 소속감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행동의 수용

정리해보면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사업은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집단적인 접근, 위험요인의 감소·제거와 보호요인의 증진, 그리고 이론적 뒷받침이라는 기본적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방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3.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적 접근의 실제

1)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대학내에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설비하기 위해서는 문제(agent)와 대상인구(host), 그리고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문제(agent)의 경우 음주는 두가지 형태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는 일회적인 음주에 의해 초래된 급성적인 문제(예: 급성 알코올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시간을 두고 그 문화의 알코올에 대한 관용성, 신체적인 의존성, 사용유형에 따라 진행되어온 만성적인 문제이다. 대학에서는 주로 만성적인 알코올 문제가 관심의 주대상이 되어왔지만, 특히 신입생과 같은 집단에게는 급성적인 알코올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대상인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모두 동일한 성질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의 무수한 학생집단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정보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각 집단마다 음주유형,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행동 및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알코올 문제 보유 여부를 예측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 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인도와 지시가 없는 문화에서 자란 학생들이 주로 만성적인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다. 반면 급성적인 알코올 문제를 보이

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 위험요인이 주로 환경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는 평소 술을 덜 마시는 집단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신입생들은 가장 비음주자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대학에 진학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음주자 비율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들이야말로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집단들이다. 예방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면 신입생, 운동선수, 여학생, 생활관 거주자, 자취생활자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이해이다. 급성적인 문제의 예측요인인 문화적·환경적 규범은 대학의 음주행동을 잘 묘사해준다. 급성적인 알코올 문제와 연관된 음주규범들을 보면 ① 혼자 마시기, ② 과다하게 허용적인 음주규범, ③ 구체적인 음주규범의 부재, ④ 취한 상태에 대한 관용성, ⑤ 음주중 부정적 행동에 대한 관대성, ⑥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음주, ⑦ 의식이나 형식이 배제된 알코올 사용, ⑧ 가족 및 사회 기능과 동떨어진 음주, ⑨ 음식물 섭취가 병행되지 않는 음주, ⑩ 모르는 사람과의 음주, ⑪ 오락으로서의 음주, ⑫ 개인주의, 자립, 고도의 성취를 요구하는 문화적 환경등인데 이러한 규범들이 대학생들의 음주규범에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서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에는 또다른 몇가지 공통적인 환경적 방해요인이 발견된다. 우리 대학들은 예방사업의 도입자체가 그 댓가에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까보아 일단 거부한다. 대학의 소비자인 학생의 복지보다 대학의 이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또 대학 당국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알코올 문제에 대해 정교한 이론이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보다 개인적인 편견이나 인상에 의해 프로그램 도입과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학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 음주와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폭음은 그저 지나가는 한 때의 일이다 → 폭음은 심각한 문제로서 대학시절에 형성된 음주 습관은 성인기에도 지속되기 쉽고 다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은 교육으로 고칠 수 있다 즉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 학생들 일부는 이미 대학에 오기 전부터 알코올 및 약물에 대한 교육의 경험자이다. 교육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 어렵다. ③ 알코올 및 약물사용은 도덕심의 결핍에 따른 것이다 → 학생들은 폭음을 하면서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④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셔댄다 →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전부터 술을 마셔온 경험이 있다. ⑤ 학생시절의 음주는 재미이다, 그러므로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행동으로 지나치다 → 그러나 폭음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blackout, 구토, 숙취등은 매우 불쾌한 경험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행정가, 직원, 교수들의 인식개선도 프로그램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대학 캠퍼스는 주류산업체의 관측장이 되기도 한다. 축제나 행사시 맥주 등 주류가 상품으로 협찬된다는 사실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대학의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심사숙고와 분석을 거쳐 학생집단, 학생자치단체, 학교당국, 교수와 직원, 지역사회를 총괄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대학생 알코올 문제와 예방 프로그램의 접근방향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실태를 위에서 다룬 agent, host, environment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주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로는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의 상실, 사고나 폭력에 개입되는 일, 인간관계 저해 요인, 건강문제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가 있다. 또 학기초에 연례행사처럼 미디어를 장식하는 과음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은 급성적인 알코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상인구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인식 및 태도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가 있다. 우선 인식 및 태도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교상의 이유로 술을 마셔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깊고 대안이 없다. 음주량이나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인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음주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음주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어서 생각과 행동사이에 괴리가 있다. 음주행동상의 문제로는 너무 자주 마시고 폭음하는 습관이 있다. 음주시작 연령도 빠르고 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마시는 이유가 비합리적이고 마시는 관행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음주환경상의 문제로 만 19세 미만자의 음주가 불법인 청소년보호법등이 주류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내 음주와 관련된 알코올 정책이 없다. 또 상담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 기구나 전문가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차원이나 학생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개입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대학생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향은 음주에 관한 대학생 개인들의 인식증대, 태도 개선, 행동변화를 위한 전략과 환경개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프로그램 내용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로는 counselling 프로그램과 의뢰 서비스(상담센터로, 경찰로, 지역사회 치료센터로), 학생자원자를 이용한 동료 상담센터, 보건소, 병원, 경찰과의 네트워크와 함께, action plan들로서 ① 약물인식주간의 실시, 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남용을 포함시키는 것, ③ 캠퍼스내에 BACCHUS 등 알코올 남용을 경계하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④ 학교당국의 알코올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 ⑤ 캠퍼스 AA를 만드는 것,

⑥ 전문가를 학교에 초빙하여 축제나 행사시 강연하게 하는 것, ⑦ 약물과 건강에 관련된 이벤트를 여는 것, ⑧ 음주자를 집에 태워보내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실시 ⑨ 이미 시행중인 약물남용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것 등이 제안될 수 있다.

〈표 4〉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예

문제영역	실천의 표적	예방적 접근의 내용
인식증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알코올 교육 • 교재개발 • 학생리더 개발
음주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긍심 기르기 훈련 • 스트레스 대처훈련 • 사회기술훈련 • 대안문화의 개발
음주행동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음주인식의 확산 • 법정금주연령의 홍보 • 음주운전예방교육
환경의 개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알코올 정책(학칙) 등 개발 • 생활관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교육, alcohol -free zone 설치, 무알코올관 등) • 원조체계 개선 (보건소, 학생생활연구소, 또래 상담 등) • 직원 및 교수 교육 • 지역사회환경개선 (대학가 술집 종사원 교육 등)

2) 실천전략

대학의 알코올 문제예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독특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어떤 전략을 도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전략도입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큰 변수는 표적 집단이 될 것이다. 이들은 십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기본적으로 매우 건강한 인구집단이며 발달적으로 볼 때 동료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려는 특성이 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신조를 쉽게 바꾸지 않는 집단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를 자기의 평소의 신조에 도전하는 쪽보다는 평소의 신조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욕구와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

다. 한 예로 우리나라 대학의 알코올 프로그램은 금주보다는 절주 또는 적정음주로의 유도가 현실적인 것이다.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은 empowerment model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예방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empowerment는 긍정적인 그 무엇을 발전, 성장시키는 것이다(Cummings, 1997). 성공적인 empowerment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 empowerment model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관여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부각시킨다.

이 모델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mpowerment는 어떤 개입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표적집단의 일차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문제의 규정도 개입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형적으로 대학당국은 알코올 문제를 “학생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이나 태도 개선 프로그램으로 교정하려 한다. 프로그램이 다 마련된 후에야 학생들이 모집되어 실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계획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여의 부재야말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문제가 학교당국에 의해 규정되는 한 학생들은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목소리로 문제를 규정하고 변화를 계획하지 않는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적 과제와도 연결된다. 최근에는 학교당국이 아닌 peer-led 워크샵과 토론 집단들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둘째, empowerment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key-leader를 발굴해서 비공식적인 지원단체들과의 연결하여 연대를 마련한 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은 다수에 대한 일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

셋째 empowerment에서는 개인과 program과 알코올 정책이 자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대학에서의 알코올 문제 예방은 대학생, 학교행정가, 학교 직원들이 전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잘 작용할 수 있게 이들에 대한 empowerment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인 전망에서 양적, 질적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 모델의 적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특성은 대학생생활에서 동료집단의 중요성이다. 대학생 음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동료집단의 문화이다. 대학생들은 자기의 규범이나 가치가 동료집단의 집단규범이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알코올과 관련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해도 그 프로그램이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프로그램 수혜자는 이를 거부하기가 쉽다. 음주자는 음주하는 동료가 준거집단이며 비음주자는 비음주자집단이 준거집단이기 쉽다. 대학생 음주자들은 동료의 음주규범을 과대평가하고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자기의 음주행위를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행동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이다. 또

프로그램의 결과 인식은 향상되었는데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집단의 행동규범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self-discrepancy 이론을 적용한 집단 규범 재정립은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Barnet et al., 1996).

이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의 실천은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동료집단의 집단규범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동변화에 접근하는 peer-based alcohol program(Yaccarino, 1996; Grossman, 1997)이 유용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우선순위에서 친구가 1위로 2위인 가족의 거의 배에 이르는 조사결과에서도 강력히 뒷받침된다. 대학생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peer-based approach는 전문가의 인도아래 알코올에 관한 정보와 상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퍼스의 학생조직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Empowerment 모델은 대학생이 동료집단의 규범이나 가치에 몰입하는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실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천되고 있는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생중심의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BACCHUS(Boosting Alcohol Consciousness Concerning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와 SADD(Student Against Drunk Driving)가 있는데 이 조직들은 대학생 자신들에 의한 대학의 life style을 규정, 홍보하고 교육, 훈련한다. 이들의 목적은 첫째, 음주허용 연령자는 책임있는 음주(responsible drinking) 또는 금주를 둘째, 대학생들의 사교생활 대안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지원한 VIEW 프로그램은 대학내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대학생 진행자에 의해 인도된 모델 프로그램이었다(Grossman, 1997). 가능한 전문가나 권위적 기성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학생들 자신의 손에 의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책임을 맡은 리더들은 프로그램 이전에 집단역학, 팀 조직, 경청기술, 의사소통기술 및 리더십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후 각 대학에서 온 지원자로 구성된 팀을 맡아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는 ① 동기화된 학생들에 대한 약물남용 예방훈련 ② 이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학교 상황을 고려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 것 ③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도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저항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① 훈련을 끝낸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자기 학교에서 시행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task-force team을 조직할 것과 ② 각 학교의 환경에 대한 사정(자원 사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VIEW 프로그램은 금요일에 시작하여 월요일에 끝나는 일련의 워크샵으로 ①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 ② 약물사용과 남용, ③ 약물남용자와의 대결과 의뢰, ④ 술과 성, ⑤ 지인간, ⑥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⑦ 법적 책임성 세미나의 일곱가지 워크샵으로 진행된다.

워크샵을 끝낸 학생들은 제각기 학교로 돌아가 리더로서 활동하며 뜻을 같이하는 동료

들을 규합하여 다양한 알코올 문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서로의 성과와 프로그램을 나눔으로써 활동의 내용을 개선시키고 활동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알코올은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기분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알코올은 남용이나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든가, 제례나 종교적 행사에서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긍정적 국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음주, 주류 판매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젊은이들에게는 성인들에게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음주는 음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화가 쉽게 일어나며 다른 약물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형성된 음주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James et al., 1996; Blanken, 1993).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성인의 특성과 청소년의 특성을 함께 갖춘 발달기적 특성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음주경험이 있거나 일부는 규칙적인 음주를 하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고, 이후에는 성인으로 취급되면서 음주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 음주가 보편적인 현상이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대학차원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매년 음주로 인한 대학생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또 그 사고의 내용이 제대로 된 교육과 인식증진 활동만 있었다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지금은 대학차원의 알코올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때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은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코올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Anderson(1997)이 제시한 10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 ① 효과적인 알코올 문제예방을 위해서는 그 노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교양과목으로 설립되거나 교양과목의 일부단원으로 소개되어야 표적 집단에게 보다 쉽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고 재정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된다.
- ② 현시점에서 그 setting에서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와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이론적 기초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③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학의 음주문화와 대학생의 음주규범을 변화 시킨다

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 ④ 캠퍼스의 학생집단은 운동선수, 생활관 거주자, 학년별로 다른 집단 등 구성원이 다양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와 특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⑤ 자원과 인적 구성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⑥ 대학내에서만뿐만 아니라 대학안팎에서 프로그램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의실, 연구실, 학생조직, 생활관, 보건소, 학생생활연구소, 하숙촌, 지역의 병원, 경찰, 대학촌 상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⑦ 대학생 알코올 문제 전문가들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확산노력이 요구된다.
- ⑧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monitoring, 지속적인 피드백과 검토등 이론에 기초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 ⑨ 대학생 자조집단이나 학생조직의 활동에 기초하여야 한다.
- ⑩ 끝으로 성공적인 캠퍼스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은 대학의 모든 위계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캠퍼스 알코올 프로그램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계획하되, 위험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면서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에서 선별적인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략적으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집단적인 접근을 해야하며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힘을 부여하는 노력과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전망을 염두에 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1999).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 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 장승옥(1997).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1호
- 조성기(1997), "우리나라 음주문화실태와 알코올 문제 해결방안". 건전음주문화정착 및 알코올 문제 예방·치료 세미나.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1998).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 Anderson, D. & Milgram, G.(1997). "Dealing with Alcohol Abuse on Campus". The Education Digest. March. 36-40.
- Barnett, L. et al.(1997). "Changing Perceptions for Peer Norms as a Drinking Reduc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61.
- Cummings, W.(1997). "An Empowerment Model for Collegiate Substance Abuse Prevention

- and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6-61.
- Duitsman D. & Cychosz, C.(1997). "The Efficacy of a University Drug Education Course on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Use". *J. of Drug Education*. Vol.27(3). 223-229.
 - Gfroerer, J. & Greenberg, C.(1997). "Substance Use in the US College-Age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7(1). 62-65.
 - Grossman, S. et al.(1997). " A Model Approach to Peer-Based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73.
 - James, W.H., Moore, D.D. & Gregersen, MM.(1996). "Early Prevention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dolescents". *J. of Drug Education*. vol.26(2) 131-142.
 - Klein, H.(1994). "Changes in College Students' Use and Abuse of Alcohol, and in Their Attitudes Toward Drinking Over the Course of Their College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2). 251-269.
 - Pullen, L.(1996). "The Relationship Among Alcohol Abuse in College Students and Selected Psychological/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49.
 - Rubington, E(1996). "College Drinking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65.
 - Slicker, E.(1997). "University Students' Reasons for NOT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83-102.
 - Scott, C.(1996) "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zing and Marketing Campu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Meet the Needs of Specific Campus Audienc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1-36
 - Yaccarino, M.(1996). "Alcohol Abuse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s through the College Student Affairs and Student Peer Counseling Perspectiv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3-17.